

수상이 결정되었다는 메일이 왔을 때, 이것이 정말로 제게 온 것이 맞는지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수상할 수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히로시마 대학에 왔을 때, 한중일관계에 있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평화롭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히로시마 대학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사회속에서 강한 개인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엄격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원해 주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대학에서,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세계각지의 많은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서로 배우며 많은 감동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원폭기념관에서 피폭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평화의 중요함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수상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대한 마음 속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언어와 비판적사고의 학습에 더 힘을 기울이고 여기 히로시마에서 느낀 평화의 중요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가려 합니다.